

이걸 말아 올린 국장

KOSPI 8,185pt(-0.5%), KOSDAQ 1,104pt(-2.5%)

해외 사항

반도체 차익실현에도 신고가 경신

- 전일 미국 주식시장 S&P500, NASDAQ 강보합 등락하며 신고가 경신. 반도체 급등 이후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쉬어갔음에도 하락한 유가와 금리, 여전히 기대감 유지된 종전 가능성. 이란 국영 방송의 비공식 MOU 초안 보도와 그것을 부인한 백악관. 그럼에도 실적 전망 밝게 유지. 골드만삭스, S&P500 연말 목표치 7,600pt → 8,000pt로 상향

수급

외국인 순매도하면 저가매수 위해 등판하는 개인투자자

- KRX KOSPI 현물 기준 이번주 대폭 순매도액 축소된 외국인 금일 재차 2.9조원 규모 대규모 순매도. 금일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안 결정 앞두고 경계감 유지. 장중 부각된 지정학적 갈등도 외국인 자금 이탈 원인. 다만 KOSDAQ 현물은 외국인 순매수 지속

시황

반도체, 2차전지, MLCC Let's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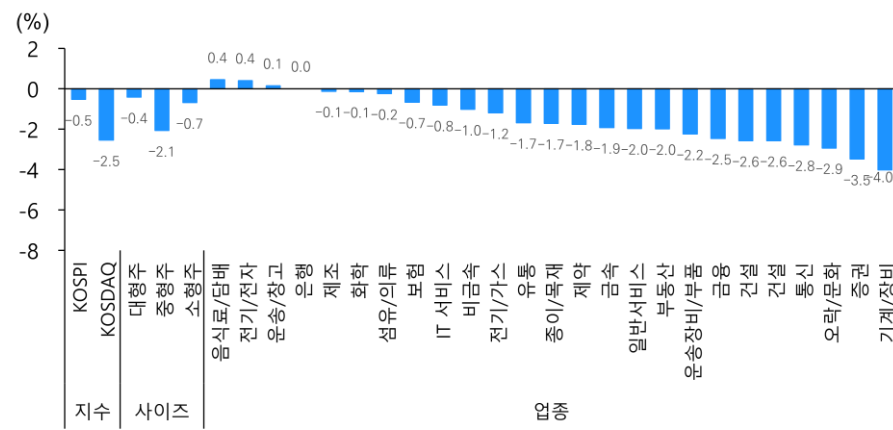
- 금일 KOSPI, KOSDAQ 각각 0.5%, 2.5% 하락. 종가만 보면 약보합 수준 등락 폭이나 장중 변동성 엄청났던 하루. 장중 시가 8,165pt(-0.77%) → 저가 7,841pt(-4.7%) → 약속의 2시 이후 낙폭 대폭 축소 → 종가 8,185pt(-0.5%) 마감. 변동성 야기했던 원인은 미국과 이란의 교전. 미국이 호르무즈 인근 이란 드론 4대 격추, 반다라아바스 군사시설 타격 → 이란 혁명수비대, 미 공군기지 보복 공격 소식. 장중 낙폭 확대됐으나 2/28 최초 전쟁 발발 이후 장장 세달간 전쟁에 익숙해진 투자자, 전면전 확대 안할 것이라는 점 고려하며 적극적 저가매수 돌입. 지수 낙폭 축소
- 금일 KOSPI 또한 압축 장세 지속. SK하이닉스(+2.1%), 2차전지(LG에너지솔루션 +15.3%, 삼성SDI +7.3%), MLCC(삼성전기 +13.4%, LG이노텍 +8.6%) 등 소수 대형주 주도. KOSPI 상승 종목 214개 Vs. 하락 종목 678개
 - MLCC** : 추론 Decode 단계에서의 병목이 지속되며 메모리 수요 증가와 함께 모듈을 실장하는 고부가 기판의 필요성 부각. 추가 판가 인상 기대감 반영하며 급등. CPO와 Advanced Packaging의 발전은 기판의 추가적인 대면적화와 고다층화를 요구하나 현재 증설 예정인 물량 감안해도 공급 부족 지속될 전망
 - 2차전지** : 주가 높여있던 데이터센터 수혜 저평가 업종. LG에너지솔루션, 미국 DTE에너지와 2.4조원 규모 ESS 공급 계약 체결 소식. 한국 2차전지는 북미 ESS 생산 능력, LFP 셀 전환, 비중국 양극재 국산화가 맞물리며 EV 다운사이클 이후 새로운 리레이팅 근거 확보하는 구간
- 한은 기준금리 2.5% 동결했으나 하반기 인상 가능성 매우 크게 열려둔 매파적 동결. 다만 현재는 시장금리 주식시장 영향력 제한적. 금일 개인투자자 ETF 수급 기준 상장 반도체 레버리지 ETF 매도 → 신규 상장된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매수. 반도체 ETF 구성 종목에 포함되어 바스켓 매수 효과 수혜 받던 KOSDAQ 반도체 소부장에 수급적 약재. SK하이닉스 장중 등락폭 6%에 육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효과는 높은 변동성, 이는 반등폭 역시 클 수 있다는 점 의미. 상승 추세 여전히 견조하며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 역시 축소 중-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8,880	-4,011
외국인	-28,957	3,819
개인	36,329	383
거래대금	521,309	127,264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